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총회 준비(예산과 결산안 결의)입니다.
- 최상득 백성복 집사 가정 이사하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53번길 40-15.
- 한누리(김영명) 성도 22일(화)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 장미라집사 22일(화) 수술하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총회가 4월 2일(토) 오전 10시 줌으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3 호

2022년 3월 2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1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 불리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년의 생활을 절기에 맞추어 생활을 합니다. 그에 맞춰 예배에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배에 사용하는 색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은 보라색을 사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이나 흰색을 사용하기도 하며 녹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음악도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 그리고 그 확장인 공동식사를 통해서도 한해의 일들을 기억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그에 맞춰 색을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해야하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인 유대인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께 따지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1년에 5절기들을 정하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기 상 모든 절기가 한번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 밤에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해 기억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들을 통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도구가 됩니다.

함께 보시고 계시는 성서일기 요한복음 본문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 절기들을 이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더 온전케 이

선교와 섬김

루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바다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 10번째 재앙과 홍해사건이 떠오르며 맹인 치유를 통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이라는 선포를 통하여 모세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 곧 메시아임을 증언하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씀하신대로 사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메시아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들을 재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한해 중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이어나가자는 결심을 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간을 가집니다. 부활절 이전에도 40일의 시간을 떼내 사순절의 기간을 가집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주일을 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달력은 46일 이전으로 시작이 수요일이 됩니다. 첫날 수요일에서는 재의 수요일이라 하여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 우리의 생명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돕는 분을 약속하셨고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대림절 전까지 창조절의 기간인데 이때는 시작된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 한주간 말씀

“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 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9장 13~41절

제목 :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이현숙 집사

찬송 : 259 268 449

####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3~23절 <바리새인들이 물었다.>

24~34절 <바리새인들이 말하였다.>

35~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2. 내용의 의미(Why)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일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들은 묻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 3. 의미의 적용(How)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눈 뜬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히 알리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이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벽돌이 깨지고 부서지면 다른 벽돌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과 대체할 수 없어. 그만큼 비게 되는 거야. 그만큼 지구는 가벼워지는 거야. 그걸 하나님과 연관 지어 생각해봐요.

내 옆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있어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성한 사람이든 안 성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죽으면 창조의 입김이, 창조의 지문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내 이웃이 남아야? 나의 일부지.

그게 사랑인 거야. 사랑이라고 끌어안고 먹을 것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 외에 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나도 없어. 역으로도 똑같아. 그 사람이 저렇게 존재하듯이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그런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년 동안 부대끼며 살아온 것이죠.

사람은 '늙다'라고 하지만, 물건은 '낡다'라고 하잖아요. '낡다'와 '늙다'는 같은 말입니다. 모음 하나 차이지요. 오래된 물건을 낡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물건이 아니라는 증거지. 이 한마디만으로 난 물건이 아니야. 난 귀찮이 아니야. 난 상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야.

상자는 죽지도 못해요. 부서지지.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시며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라'고 하시자, 과학자처럼 의심 낳은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라고요.

예수님이 딱한 눈으로 그를 보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인 것이예요.

눈물 나를 애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어디 문패 보고 오냐? 길로 가고 진리로 가고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하고 하신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메멘토 모리] 중에서.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44 : 12-15 인도자  
32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23 인도자

148, 89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복음 11 : 1 - 16 설교자  
150 공동체

“ 부활 소망을 예표하신 예수님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21 설교자  
다함께

516(1)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진용용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 소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부활 소망을 예표하신 예수님

초막절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네 번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독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초막절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던 곳으로 몸을 피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심. 예수님께서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두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요한복음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난받으실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 소망을 심어주실 필요가 있으셨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은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하고 가장 놀라운 표적으로 기록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충환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꾸러기들에 모습은 언제나 햇살같이 빛납니다. 어른들의 시선으로는 엉뚱할 수 있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참 순수 그 자체입니다. 언제나 예쁘게만 바라보지만 한 순간에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이지만 어느덧 1살 더 먹어서 6살이 된 꾸러기들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꾸러기 체육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때로는 힘들어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칭을 힘들어서 안하려고 하는데 5살에 힘들어하던 친구들도 지금은 6살이 되고 모든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어려운 스트레칭과 유연성을 위한 황새와 뱀새 놀이를 하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스스로 이제는 잘 이겨내면서 즐겁게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꾸러기들은 양보를 참 잘합니다. 아침 모임에 칭찬을 하는데 자리를 양보하거나, 하고 싶은 놀이를 양보하는 등 양보에 관한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속이 상해도 다른 친구를 위해 큰마음을 먹고 양보하는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는 게 속상해서 잘 못했는데 어느덧 서로 열심히 양보하고, 웃으면서 여유 있게 다른 친구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정말 마음이 많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받는 친구들의 마음은 정말 바다 같이 넓고 깊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지난 주말 즈음 어린이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여러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산의 추이를 살펴볼 겸 월요일과 화요일 이를 동안은 온라인 수업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처럼 신나지는 않지만 대신 확진돼서 격리 중인 친구들도 화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개학 후 수요일마다 대통령선거와 개학여행 등으로 시간표대로 지내지 못했다가 **크리스마스** 주 수요일에는 이번 학기 처음으로 정상 수업을 하면서 일정을

보냈습니다. 1,2학년의 공동체놀이, 3~6학년의 주제탐험, 그리고 2~6학년의 악기 수업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 중 첫 주제탐험 시간은 '사순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재만 선생님께서 사순절을 비롯한 교회 절기들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친구들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테인드글라스 기법을 응용한 십자가 꾸미기를 했는데 만드는 과정도 흥미로웠고, 결과물도 좋아서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절까지 친구들 가정의 창문에 붙여놓기로 했으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제 새로운 주에는 미뤄뒀던 임원선거부터 합니다. 드디어 어린이 자치회와 부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요?! 참, 휴게실을 철거하고 허전했던 자리에 어린이학교에서 꽤 큰 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공동체 집사님들의 수고로 잘 설치된 이 텐트는 제법 아늑한 어린이들의 아지트입니다. 공동체 식구들 누구나 입장 가능하니 놀러 오세요.^^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지난주 멋쟁이들은 한 주간의 생활 표어를 "몸 관리를 잘하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꽃샘추위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인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열린 수업 시간에는 체격과 체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와 체중, 왕복 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 굽혀펴기, 윗몸 말아올리기, 종합 유연성 검사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놀라운 신체능력 등 다양한 멋쟁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첫 멋쟁이 공동 심화 학습 수업의 주제는 <Z세대와 트렌드>입니다. 특별히 이번 공동 심화 학습은 멋쟁이들이 직접 주제를 정했는데요! 지난 시간엔 사전 준비팀이 기획과 진행을 맡아 수업 목표, 수업 개요 등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준 덕분에 질문과 답변이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신앙적 진보를 이루는 한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교사 : 박예나 >

## 함께 산다는 건

'함께 사는 이야기'를 써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지난 한 주 동안 '혼자 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지난주 한 주를 잘 보내고 주말에 몸이 좋지 않아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기분이 그런 것이지.. 당연히 음성 결과가 나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생활을 해야 하니 마음 편히 음성임을 확인하는 생각으로 검사를 했는데 주일 아침에 울린 핸드폰에는 검사 결과 양성이며 재택치료를 위해 7일간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 망했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매일 확인하고 점점 늘어나는 학교 학생들의 확진 소식에도 늘 조심한다고 생각하며 '별일 없겠지' 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집 아이 둘이 확진되어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도 걸리지 않고 넘어갔으니 아마도 나는 '슈퍼 면역자'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방 안에서 일주일 넘게 꼬박 생활하며 철저히 지켜주었던 우리집 아이들에게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어린이학교 선생님 한 분도 확진되어 어린이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거의 모든 시간에 수업을 하셨고, 그러고도 부족하여 생활공동체 분들께서 수업과 하교 차량 운행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개의 카톡이 울리는 어린이 학교 교사톡방은 한 주간동안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올리는 사진 전용 톡방에는 어린이들의 일상 사진들이 매일매일 올라왔습니다. 사실 격리중인 교사들은 고생하고 있을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바쁘기도 했지만 격리 중인 교사들이 미안해할 마음을 알아서 한 주동안 톡방이 조용했음을 서로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잘 지내고 있다'고 어린이들의 사진을 매일 올려주셨지요..

함께 산다는 건.. 서로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임을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나니, 저는 지난주에 '혼자 사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네요. 여전히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누가복음 18장 9-14절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한 달 새 러시아 또한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전을 주장하다 잡혀갔고, 경제 제재 등 여러 이유로 러시아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 때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였던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는 가톨릭 교황과의 연락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의로운 평화에 도달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빨리 그 지역에 평화가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메노나이트 예수마음교회>

- 1) 지체들이 섬기고 있는 평화 교육과 영성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2) 2월에 열리는 메노나이트 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코로나 전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학교를 위해
- 2) 1천만명의 확진자 숫자를 가지게 된 상황에서 다들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 3) 최근 수술을 하신 장미라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공동체에도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일상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격리를 하는 지체가 있으면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과일이며 빵이며 입맛 없을 환자를 위해 살피고 돌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귀한 어려움입니다.

공동체는 계속되는 화단과 발 정리로 풍경이 정돈되고, 산수유를 시작으로 마당이 꽃 천지가 되어갑니다. < 장영미 전도사 >